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 목 :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 누가복음 7장
18-30절

18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19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20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쭙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21 마침 그 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2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슴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23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24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25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26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27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라

2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29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30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눅7:18-30)

살면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또는 허송세월하지 않으려면 시선고정이 중요하다.

그 무엇보다도 시선 고정이 중요하다.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 보이는 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 인생. 인생의 목적은 사명보다 더 우선적이며, 자신의 직업보다 더 우선적이며, 자신의 가정보다 더 우선적이며, 자신의 취향보다 더 우선적이며,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우선적이다.

물론, 더 우선적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결코 덜 우선적인 것들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덜 우선적인 것들은 더 우선적인 가치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내어 준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본이 되는 기초는 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더 우선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더 우선적인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덜 우선적인 영역일지라도 더 우선적인 가치가 원리로 적용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의 시선은 가장 우선적인 가치에 고정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장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30)

30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눅7:18-30)

-바리새인들은 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까?

-그들 나름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스스로 어른이 되고 스스로 율법주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늘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두가지 율법주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 가까이 왔는데 아직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은 율법주의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든 두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먼저 소개하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셨다.

1.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든 두가지 부류의 사람들

1)세속을 버리고 자연에 순응하려는 사람들

-세례요한과 같다. 에세네파 사람들

-이들은 세속을 버리는 것이 죄악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아름다움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세속적인 세계를 불태워버리고 싶어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화적 명령도 내리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우리가 잠시 휴식을 얻기 위해서 세속을 떠나는 것은 좋지만, 세속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다.

2)세속적으로 특화되어 스스로가 세상을 다스리려는 사람들

-세속적으로 특화된다는 것의 의미

--권력, 돈, 명성 / 장이 되는 것 / 특권을 쥐는 것 / 자기의 몫을 확보하는 것 등에 특화된다는 뜻

--탐욕과 쾌락을 얻는데 뛰어난 기술을 발휘해 남다른 재미를 탐닉하는 것

--문화적 주도권을 쥐고 그 주도권으로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돈을 긁어 모으는데 앞서고, 또는 그 문화를 소비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종교적으로 특화되어 세속적인 사람들의 죄책감을 해소시켜 주는 종교의식을 만들어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율법주의 아래 종속시켜 부와 명성과 권력을 얻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가장 어려운 자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2.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2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본문 해설이 필요함.

-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14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막10:14)

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막10:15)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눅18:17)

-순전한 사람.(단순한 사람)

-세속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그러나 세속적으로 더럽혀졌어도 순전한 사람이 있다. 막달라 마리아, 삭게오)

-친아버지를 무조건 따르는 사람.

내 속에 내 생각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만 가득채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게 된다.

아멘.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3:3)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 3:5)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12:28)

24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마19:24)

31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마21:31)

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21:43)

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막1:15)

26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막4:26)

30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막4:30)

1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막9:1)

47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막9:47)

14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막10:14)

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막10:15)

23 예수께서 둘러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막10:23)

24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막10:24)

25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막10:25)

34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막12:34)

43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 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막15:43)

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고 (눅4:43)

20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눅6:20)

2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눅7:28)

1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눅8:1)

2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눅9:2)

27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눅9:27)

60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고 (눅9:60)

62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눅9:62)

9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눅10:9)

11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눅10:11)

20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눅11:20)

18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눅13:18)

20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눅13:20)

29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
하리니 (눅13:29)

15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눅14:15)

20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눅17:20)

21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눅17:21)

16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눅18:16)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
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
리라 하시니라 (눅18:17)

24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
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눅18:24)

25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눅18:25)

29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

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눅18:29)

11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눅19:11)

31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눅21:31)

1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눅22:16)

1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눅22:18)

51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눅23:51)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3:3)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3:5)

22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행14:22)

25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행20:25)

23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행28:23)

31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행28:31)

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롬14:17)

20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전4:20)

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고전6:9)

10 도적이니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전6:10)

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5:21)

5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엡5:5)

11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골4:11)

5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살후1:5)

9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계1:9)

10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계12:10)

17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계17:17)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